

공화국의 군력을 최강의 경지에 올려세우신 위대한 10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주체101(2012)년 7월 17일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칭호를 받으신 매우 뜻깊은 날이다.

세계유일의 최정예혁명강군을 키우시어

지난 4월 25일 전세계가 지켜보는 속에 김일성광장의 주석단 앞으로는 최정예강군으로 자라난 공화국무력의 열병종대들이 원수복을 입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목청껏 만세를 부르며 보무당당히 행진해갔다. 강용한 기상을 떨치며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열병대오를 바라보며 온 나라 인민은 인민군대를 최정예혁명강군으로 키워주신 절세위인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과 경모의 정을 금치 못하였다.

나라의 존엄과 안전, 인민의 안녕을 굳건히 지키고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해서는 강위력한 혁명군대가 있어야 한다.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난 10년간 인민군대를

이날을 맞으며 공화국의 각계층 인민들은 천출명장의 탁월한 령도의 손길 아래 나라의 군력이 비할바없

이 나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밝혀주신 전군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군건설의 총적방침으로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사상, 군력강화의 4대전략적로선을 비롯한 독창적인 군건설사상과 리론들은 인민군대를 최정예강군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킬 수 있게 하는 불멸의 지침들이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인민군부대들을 찾으실 때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사적비와 혁명사적교양실, 연혁실들을 돌아보시며 5대교양을 원리적으로 심도있게 하도록 하시였고 전군에 혁명전통교양의 불길을 지펴주시어 모

든 인민군장병들이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무장하게 하시었다. 특히 인민군지휘성원들을 백두산군마행군길에도 불러주시고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뜻깊은 《백두산》 기념권총도 직접 수여해주시며 그들이 틀어잡은 총대에 항일의 넋을 만장약시켜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동서고급의 모든 병법들과 그 활용방식까지 환히 꿰뚫어보시며 어떤 형태의 전쟁과 작전, 전투에서도 다 승리할수 있는 명활무쌍한 전략전술과 전법들을 밝혀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군사적지략은 인민군대가 천하무적의 강군으로 위용떨치게 한 백승의 보검이었다.

로 꾸러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비범한 령군술은 조선인민군 제1차 비행사대회를 비롯한 전군적인 대회들과 오중홍7련대청호쟁취운동과 근위부대운동, 명사수, 명포수운동에도 어리여있으며 끊임없이 찾고찾으신 포연서린 전투훈련장들에도 새겨져있다.

특히 인민군지휘성원들을 백두산군마행군길에도 불러주시고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뜻깊은 《백두산》 기념권총도 직접 수여해주시며 그들이 틀어잡은 총대에 항일의 넋을 만장약시켜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인민군대전투력의 상징이고 무쇠주먹인 주력땅크중대, 인민군대의 제1병중, 세계최강의 병종인 포병부대, 세상에 없는 조선의 절대병기의 하나인 초대형방사포중대, 하늘과 땅, 바다, 우주의 그 어느 공간에서 그 어떤 전쟁방식에도 대응할수

있고 적을 단호히 제압분쇄할수 있는 전략미사일중대들, 공화국전략무력을 대표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7》형... 공화국의 존엄과 국력을 시위하는 이 철의 대오, 조선로동당시주체병기들은 국방공업발전이 바친 경애하는 원수님의 끝없는 헌신과 로고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국방과학자들에게 주체무기개발의 종자와 과학적발전의 착상도 띄워주시고 국방과학의 길은 자주의 길, 혁명의 길이라는 신념과 의지도 북돋아주시며 그들이 철

무진막강한 전쟁억제력을 마련하시어

단국방과학기술의 높은 고지를 점령해나가도록 힘과 고무를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세계적인 막강한 군사력, 조국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하고 후손만대의 영원한 존엄과 행복과 안녕을 수호할 절대적인 힘을 키우기 위해 바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헌신과 로고를 어찌 다 헤아릴수 있오랴. 주체무기개발집단의 총생계가, 총제작자가 되시어 주체병기의 탄생을 위해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바쳐 개발사업을 이끌어주시고 위형천만

자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자기 령도자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조선인민군의 참모습을 잘 엿볼수 있다. 진정 천출명장의 탁월한 군건설령도가 있어 공화국군대는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든든히 준비된 최강의 군대로 자랑날수 있었다.

단국방과학기술의 높은 고지를 점령해나가도록 힘과 고무를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세계적인 막강한 군사력, 조국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하고 후손만대의 영원한 존엄과 행복과 안녕을 수호할 절대적인 힘을 키우기 위해 바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헌신과 로고를 어찌 다 헤아릴수 있오랴. 주체무기개발집단의 총생계가, 총제작자가 되시어 주체병기의 탄생을 위해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바쳐 개발사업을 이끌어주시고 위형천만

한 시험발사장에까지 나오시어 주체무기들의 발사 전 과정을 지켜보신것은 그 몇번, 조국과 인민의 존엄을 결코 날아오르는 주체란의 장쾌한 비행운을 바라보시며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 성공의 희열을 누르지 못하시어 전사들을 얼싸안으시던 뜨거운 격정의 순간들을 인민은 대를 두고 전해갈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비범한 령도에 의하여 공화국국방공업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정보화가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되고 현대적이고 위력한 무장장비들을 마음먹은대로 만들어내게 되었다.

힘과 힘이 치열하게 격돌하는 현 세계에서 국가의 존엄과 국권 그리고 믿을수 있는 진정한 평화는 그 어떤 적도 압승하는 강력한 자위력에 의하여 담보된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한 지론이다.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0돐경축 열병식에서 하신 뜻깊은 연설에서 우리

는 계속 강해져야 한다고, 자기스스로 지키기 위한 힘을 키워나가는데서 만족과 그 끝이란 있을수 없으며 그 누구와 맞서든 우리 군사적 강세는 보다 확실한것으로 되어야 한다고 힘주어 강조 하시었다.

지나온 10년을 되새겨보며 공화국인민들은 그이의 손길 따라 나아가길 승리의 대통로를 내다보고있다.

정녕 경애하는 원수님은 절출한 사상과 령도, 열화같은 사랑과 절대적인 믿음으로 조국과 인민을 이끌어 건국 이래 일찌기 가져보지 못했던 최강의 국력을 키워주시고 반만년민족사에 가장 존엄높은 강국의 시대를 열어놓으신 정의와 평화의 위대한 수호자, 만고절세의 영웅이시다. 아, 그 이름도 빛나는 김정은원수!

경애하는 원수님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로 높이 모신 10돐을 맞으며 이 나라 인민은 그이께 최대의 경의를 삼가 드리고있다.

원평선



자위적군력을 억척으로 다져주시려고

전략군의 사명준비 원수님께 올리는 경건한 마음으로

주체103(2014)년 전승절을 맞는 격동적인 시기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미사일발사훈련을 지도하시었다.

뜻깊은 전승절을 하루 앞두고 진행된 이날의 발사훈련에서도 화력라격부대의 전투력과 전술미사일의 전투적성능이 완벽한것으로 평가되었다.

발사 전 과정을 지도하시면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제는 전략군이 현대전에서 그 어떤 화력라격임무도 막힘없이 수행할수 있게 준비되었다고, 전승절을 맞으며 터진 이번 화력라격훈련의 폭음은 전략군의 싸움준비완성을 알리는 장쾌한 포성파도 같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도전해나서는자들은 그가 누구든 최후종말을 면치 못할것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었다.

정면의 기쁨과 함께 나누시며

주체105(2016)년 4월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를 지도하시기 위하여 바다가의 발사장으로 나오시었다. 모든 국사를 뒤로 미루시고 백두대지의 영웅청년들을 만나보고 돌아오시는 길로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를 지도하시기 위하여 바람세찬 바다가발사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었다.

이날 기쁨에서는 탄도탄수중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단행하고 귀환하는 전략잠수함을 항구에서 맞이하시고 그들과 함께 력사적인 성공을 축하하여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위대한 사랑과 혈연의 정으로 풀어주고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과 함께 기쁨도 시련도 이겨내며 헤쳐온 탄도탄개발의 고심참담했던 나날들이 눈에 밝혀와 장내는 눈물의 바다를 이루었고 이들을 바라보는 그의 눈가에도 뜨거운것이 젖어올랐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의 대성공을 거듭거듭 높이 평가하시면서 나라의 국방과학기술발전을 위하여 헌신분투하고있는 이런 미더운 애국자들이 있기에 우리 당이 강하고 우리 조국이 더욱 존엄높고 우리 혁명이 승승장구하고있는것이라고 신심에 넘쳐 말씀하시었다.

영원이 잊을수 없기 날

주체106(2017)년 3월 18일 국방과학원에서 새로 개발한 우리 식의 대출력발동기지상분출시험이 진행되었다.

공화국의 자위적군력을 최강의 경지에서 다져주시기 위해 불같은 헌신과 끝없는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직접적인 지도밑에 지난 시기의 발동기들보다 비추진력이 높은 대출력발동기를 완전히 우리 식으로 새롭게 연구제작하고 지상분출시험에 참가한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의 가슴가슴은 크나큰 격정으로 설레이였다. 새형의 대출력발동기제작정형을 보고받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이른새벽 몸소 서해위성발사장에 나오시어 발동기의 기술적특성과 지상분출시험준비실태를 세심히 로해하시고 시험을 지도하시었다.

새형의 대출력발동기지상분출시험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발동기연구제작을 위해 심신을 다 바치며 고심어린 연구사업을 벌려온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을 얼싸안아주시고 몸소 등에 업어도 주시며 그들의 공로를 값높이 평가해주시었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미사일공업발전에서 대미약을 이룩한 오늘을 영원히 잊을수 없는 날, 《3.18혁명》이라고도 칭할수 있는 력사적인 날이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었다.

본사기자